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포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성경과 함께 경전한 설 연휴를!”

성경통독사경회 내달 15 - 16일 교회당서 개최

우리 교회에서는 설 연휴를 이용하여 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한다.

이 사경회에서는 설 연휴인 내달 15일(월)과 16일(화)에 개최되며 참가자는 구약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경회는 낭독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참가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성경 낭독자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할 예정이며 성경통독사경회에 참가자는 읽기에 편한 글씨가 큰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을 준비하면 되는데 성경책은 당일 교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시간표는 제 1교시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 2교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 3교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12시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는 식사 및

휴식시간이며 교회에서는 참가자를 위한 식사뿐 아니라 비상약품을 준비하는 등 참가자를 위한 배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비는 식대를 포함하여 1만원이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받으며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이 사경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말씀에 착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순결서약식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난 주 찬양예배 시 순결서약식이 거행됐다.

순결서약식에서 참가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결혼 전 순결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그 서약을 늘 상기할 수 있는 순결반지를 받았다.

순결서약식은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1995년에 시작하여 매년 첫 주에 시행하고 있다.

제 3회 목회자 신학심포지엄 개최

1999년 1월 11일 ~ 12일까지 1박 2일간
김치동문회 주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후원

제 3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심포지엄'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소재, ☎ 0347-66-4917/8)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회(회장 차정운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후원한다. 주제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다. 첫 날에는 이종윤목사

(서울교회)의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에 따른 강연으로 시작하여 안형준 교수(명지대)가 “한국 경제와 미래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멘탈의 개척교회 성공 전략”이라는 내용의 특강을 한다.

둘째날 새벽기도회는 이영호 목사(세순교회)가 인도하며 “목회자의 영성회복”에 대해 설교한다. 또한 류태선 목사(총회사회부 총무)가 “사회 불안과 교회의 대안”, 이승영 목사(새벽교회)가 “21세기 새로운 목회 모형”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목회자신학

세미나 내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1994년 3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이 동문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갱신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김치 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대상은 목사와 전도사 등 전국의 목회자이며,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02-3426-4236) 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02-517-7651/5)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3만원이다.

이사야 강해

모압에 대한 경고

이사야 15장 1-5절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과 앗시리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모압에까지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자식들의 후예입니다(창 19:30-38).

모압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주로 사해 근처, 예루살렘에 가깝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비록 국토의 면적은 작았지만 그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항상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모압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이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사 16:14). 이 말씀은 예언의 확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예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모압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악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방에까지 미쳐 마침내 온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모압을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내에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은 예언자의 사명과 예언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 폐망이 갑자기 닥칠 것이다

세상에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갑자기 일이 일어난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갑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이며 모압 기르는 모압의 요새지로 큰 두개의 도시가 하루 밤 사이에 황폐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 밤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도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압인들이 흘린 눈물은 통한의 눈물이고 저주의 눈물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분한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3. 모압 군대는 두려워 할 것이다

불평과 슬픔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닷과 다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굶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트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사 5:1-5)

이종운 목사



시간표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런 일이라 할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모압이 하루 밤사이에 망할 것이라는 것은 단지 모압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 수치스런 눈물을 쏟게 될 것이다

모압 사람들은 급해지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귀신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산당으로 쫓아가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부끄러운 눈물만 흘리고 내려와야 했습니다(2-4절).

본문에서는 모압을 의인화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온 머리, 즉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산당에 가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산당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서 굶은 배로 몸을 동이고 울고, 산당과 지붕에 올라가 울고, 또한 크게 울면서 내려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통곡으로 가득 찬 9개의 성이 언급되어 모든 도시가 울음바다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고 사기가 떨어지면 갑자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한 나라의 힘과 방패로 삼았던 자기들의 귀신이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하자 모압인들은 그만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기가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인간의 사기를 꺾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보며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여 모압을 위하여 애원의 기도를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잠 24:17).

이사야 선지자는 죄와 죄인에 대하여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족속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 살기로

전금녀 (성도, 중국 연길시)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목사님과 사랑 풍성한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지난 8월 귀국했습니다.

그후 저는 여기 연길시 연남기독교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곳에서 장로교회를 찾을 수 없어 지난 9월에 등록하긴 했으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수교 장로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므로 목사님, 성도님들께

서 아시면 상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 부부가 설교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3년되었고 권사님 1분, 집사님 20분, 전 성도가 200명쯤 됩니다.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약속대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고 싶고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귀국할 때 어느 집사님께 받은 홍해작전의 설교 테이프 10개를 매일 반복해서 들으면서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몸은 비록 중국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한국의 서울교회에 가 있어요. 교회의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연길시에 봉사하고 전도하실 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반갑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

위원회에 듣는다 - 전도위원회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전을 채우자

최중시 (장로, 전도위원장)

백찬 감격으로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1999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계획과 비전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바로 새 예배당 건축 시대를 맞이 한 우리 교회는 복음 확산을 위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건을 갖추는 때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를 모으고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는 기회에 감사하며 올해 전도위원회가 할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 집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만이 아닌 행동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회 모임은 검소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적당한 친교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가서 전하는 일에 앞장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회별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 규모 있는 모임을 활성화해야겠습니다. 복음에 유

익한 일을 찾아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여건만 갖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상의 전환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수가 시작하면 주님께서 창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넷째, 교회가 세운 전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전도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미자립 농어촌 교회 지원과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와 농어촌 전도대 파송 등을 통해 복음 확산과 구원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이름만 있었던 학원 선교와 70인 전도대의 부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원 선교는 교회학교 각 부서가 주체가 되어 각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복음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을 통해 각 학교를 전도 전진기지로 삼아 집중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을 그 시작을 준비하는 해로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전도대도 전열을 가다듬어 전도특공대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조직을 다시 살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묵상일기

내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22:10)

위의 성경 말씀만 생각하면 밥을 안먹어도 즐겁고 가난해도 좋고 깊은 산속 외딴 곳에서 길을 잃어도 슬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뼈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자체는 비방거리고 조리거리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은 녹았고 힘은 팔라 질그릇 조각갈고 죽음의 진토 속에 있고 더구나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자녀라고 못박으시고 인을 치시면서 온갖 고난과 죽음의

강을 보파리로 주시느냐 말입니다. 사탕 발림도 유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으로 유도하신 후 멸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날 때부터 맡긴 바 된 자는 내가 아니고 아들되신 예수님이셨고 그 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셨어야 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버림을 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임하실 것을 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기에 그렇게 많은 하소연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거나 무죄한 자가 대신 죄를 짊어지는 것은 그 당사자가 예수님일지라도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연유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주만 높이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김광신(장로, 11교구)

시편

22편 10절

99년 새해 소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란(집사, 마리아 3전도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뵈는데 있어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영적 생활을 합리화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더욱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여야만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더욱 힘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음미하면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지라도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의 능력을 쉬임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나의 진실함이 드러나야만 다른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이루는 고등부되게 하옵소서

조종화(고등부 회장)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 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세워주시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섬기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서울교회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선생님 성경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여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역시 크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 닮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고등부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원을 다녀와서

하늘답게 하소서

오하영(대학부)

나는 모릅니다.
그의 기막힌 캄캄함을
그의 고독의 목메임을
나는 모릅니다.
그의 찢겨진 언어의 비밀을
그의 바람진 방향의 각도를
나는 모릅니다.
그의 부서진 날개의
피흘림도
그의 시간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의 어두움이
영혼의 빛이 되어
단혀진 하늘에 빔장이 열리며
새로 태어나
하늘 답게 하소서
그리하여
홀로 자유하게 하소서
땅에서 하늘까지
당신의 비밀을
크게 드러내
외치게 하소서



* 제1권사회 회원은 13일(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등정

- * 이종윤 목사는 13일(수) 기독교실업인회(CBMC) 서울지역 연합신년 예배에서 설교하며 14일(목)엔 서울여자대학교 이사회에 참여.
- * 이번주 식사는 하영수 장로 · 박정순 권사가정과 전춘자 권사가 제공.

■ 이종윤 목사 방상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침을 받고 고쳐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 1999년도 교회의 행사를 위해
3. 제3회 목회자신학심포지엄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